



철학박사 북한 김대총장 유성훈 선생

유성훈 선생은 1906년 12월 29일에 원동변강
 북간구역 남향동에서 중농민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유
 선생은 어린 유년 시대부터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고 스스
 러를 노련하였다. 유 선생의 부모들은, 남향동에 초학교가 있
 었으나, 어린 소년을 학교에 보내지 여수하고 부세되는 때부
 어 집에 앉어 놓고 독선생으로 취하여 고학을 쉬었다. 다만
 1917년에 초중에 갈항이 되자, 유 선생은 최음학교로 가게되
 었으나, 벌써 준비된 학생으로서 초중 일학년만에 입학하였다.
 1920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초중을 마감하고 원동에서도
 명성 높은 소왕령 한인 사범전문학교를 1924년에 졸업
 하신였다. 사전을 마감하신후 유 선생은 약 6년간 고종 및
 초중 력사 교원으로 하시고 초중 및 고종 학교장 직무에 임하시
 었다.

이 당시에 원릉병원에는 지식을 소유한 한인간부들은 아주 희소
 하였다. 자기 조국을 일제에게 점령당하고, 살길이 없는 한인들은
 다만 살길을 찾아, 처음에는 한국에 왔다가, 거기에서도 자꾸는
 들의 착취가 혹심하여 원릉병원에 넘어온 한인들은 전부가 빈
 농민들이었다. 다만 1919년 3.1 운동이 있은 다음에야 부활의
 한인 언더리들도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원릉병원에 넘어
 오곤 하였다. 이들 다수는 처음에는 원릉에서 별산운동, 다음
 혁명군에 가담하여 백로시아 군연대와 전쟁을 하였다. 이인
 테리들의 기대는 소련에서 해방전쟁이 끝나면, 한인복대들을
 독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여 조선반군도 일제로 복귀 해방
 할것을 기대하였으나 소련 정복은 원릉에서의 해방 운동이 끝나자
 전체 별산운동대들에게서 무장 해체를 요구하였리며, 전쟁의
 신에 쟁의 건설의 노선은 잡혀 있었다. 이리하여 한인군
 인들은 크게 실망하였으나 할수없이 당의 노선에 수응하여 경
 제 복구 건설에 들어 서면서 농촌들에 학교로 설치하고 그때
 까지 없던 한인학교들로 세우고 아이들도 교양하게 시켰다
 었다. 유성훈 선생은 원릉병원에서 태생하였으나 한인상식
 을 방불하게 소유한 세롭게 준비된 교원 언더리로서 아주 의신
 있게 사업하시었다. 이렇기 유성훈은 1931 까지 원릉병원연
 해주 각지방에서 위선있는 교원으로 일하시었다. 선생은
 자리 상식으로 놀이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여 1931.
 년에 원릉 불라지 위선학교에 한인 사범대학이 설립
 됨으로써 선생의 생활을 다복게 하였다. 선생은 1931.년
 에 처음 설립된 사범대학생으로, 즉 대학생으로 공부하
 시면서 대학에 새로 조직된 "노동학생회" 즉 대학 예비과
 에서 교원으로 강의하시었다. 때문에 유성훈은 경제문
 제에 대하여서는 걱속을 받지않고 공부를 하시게 일드
 하시었다.

원동면장 불라지워쓰르크 한인사범대학은 세계 역사에서 처음 열린 우수한 한국어 사범대학으로서 1931년 9월 1일에 개학을 선포 하였다 대학에는 어문학부, 역사학부, 수물학부, 자연-화학 학부가 있었다. 조직초 시기에 27 명의 교직원과, 교직원 191명이었으며, 첫 입학자 수효는 481명이었으나, 1935년에는 2131명이었다. 대학에는 당시 원동에서 유명한 한인 인테리, 박사 학사들이 다 몰려와 강의하게 되었다. 계몽우 한국어 박사, 하가디 수학 박사, 오가디 뱀뜨르 역사학 박사, 리비바울 생물학 박사 등 외에 서울과 동경에서 대학들을 졸업한 많은 학과들이 그 수 집영을 혁입하시었다. 유선생 선생은 벌써 사회 생활에 경험이 많으신 성숙된 간부로써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또로 공학원의 교원노릇을 하시면서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면서 대학내의 청년 공부를 만났-레린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조직 진행하였다. 유선생은 사대 역사학을 1935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필하시고 해삼시. 즉 불라지워쓰르크 시에서 약 200 길로 거리를 떨어져서 있는 알잠시 초공학교 교장으로 임명받아 가시어서 사 업하시었다. 당시 고공학교는 불라지워쓰르크, 리바 롭나크, 한인 자치회가 존재하여 있는 뱀시예츠크 역 크라쓰끼노 에 있었고 소왕형에는 한인 사적이 있었다. 교육 경험, 학교에 대한 지로 경험이 풍부한 유선생 선생은 알잠시 고래인 초공을 원동변강적으로 모범학교

들중 하나를 만드시고 원용 병강적으로나 영해구적^{4.}
으로 집행되는 강종 경험교화회의 등에는 항변을 배아짐
없이 참가 하시면서 권 병강적으로 보편교육자로써 일
하시였다. 함원공 병강에서의 한인들의 생활은 그 문화가
극도로 융성 발전된 시기였다. 그러나 1937년이 당초연
10월에는 한인들의 그 찬란하던 문화가 소련권의
한압 정책에 의하여 완전히 말살되고 파괴되
여 버리고, 살아남은 한인 어르신들이 자라나는 후대들
은 코어 문화로 전환하여야 되었다.

유선생은 자기가 갈수록 커져가는 걱정은
학교를 떠나 한인 강제이주인들과 함께 화물 열차
에 실려 가자흐 공화국, 가라간다 단광에 도착하
게 되었다. 가라간다 세는 한인 학교를 열반한교
사가 없었으며, 교육기재나, 아무런 근거로 없었다. 그러
나 유선생은 현 변집을 하나 배정받아가지고 한반에 두
학급씩 안치고 12월 1일 복학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으며
1938년 1월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난관이 생기였다.
그것은 전체 한인학교들은 한 언어 교육은 폐지하고, 종전
강령대로 코어로 교육을 계속하라는 것이었다. 유선생은
상식을 아주 발휘하였으나 그러나 코어말은 약하였다. 이
러한 경우에서 초중교장도 변변히 할수없었지만 아이
들에게 학과목로 요구할수 없게 되었다. 흥년, 수학
과목과 달리, 역사학 과목은 더구나 고쳐하였다. 때
문에 유선생은 가라간다 시를 떠나 사범대학에

이국하여온 개사호 공화국대 크를올다시 세 가지에서
 사대내에서 한국어 강좌에서 임시로 일하시면서, 또
 다시 로마 강좌에서 청강생으로 공부로 하시었다. 이렇게
 일할 동안 고생하다가 1941년에는 두르백 공화국 하심
 칙 구역 레닌 행정 초중에서 행정적으로 일하면서 자
 습도 하며, 학교 건설에도 열성을 다하여 참가하시었다.
 이 곳에서 새 학교를 세우고 2년 동안 안정하게 일하
 시다가 또 학교부의 조동으로 하유케는 시군방 안기
 을 고공에 고장으로 배치되어 1942년 부터 일하시었다.
 유선생이 안기출 고공 고장으로 일하시던 시기는 초원에
 있어서 아주 큰 시련의 시기였다. 벌써 수년째 계속되
 고 있는 독소전쟁은 많은 유능한 간부들을 전선에 나가
 게 하였으며, 도시와 농촌들에는 인제들이 부족하여
 총병안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연일 생활은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고공 학교장으로 일
 하기에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야전 일러하였으며, 그때때로는 서쪽 전쟁지역으로
 복귀 시키는 것은 큰부공장 시설품들을 하차하는 일에
 부일씩 동원 되어 일하였었다. 부분적 대학 교수, 학자
 박사들까지도 하차사업에 동원 되어 일하였으며,
 때로는 밤이런 역전에서, 부직실에서 과번서도
 일하였었다. 이렇게 바쁜 환경에서 3년간 일하
 다가 1945년 8월에는 유성출 선생은 큰 군사령

6
원부의 명령을 받아 공화국 군사지원부에 도착하
여 원릉 변강 현에 주둔하고 있던 제 25군단
사령부에 신속히 가야 된다는 지시를 받고 곧 출발
하려 하였다.

유선훈 선생은 1928년에 장가를 들어 가정을
이루었으나, 벌써 이 당시에도 아들 3형제가 있
었다. 군대 복무에 출발하는 봄이자 이 가정은 어떻게
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
하고 또 집에 다시 가지 못하고 출발하여 25군단
주재지 원릉 위로실로보시로 도착하여, 정외부의
지시를 받고 일하시었다. 여기에서 얼마동안 지내하
지 않고, 동만 국경을 공격하는 소련군 정외부에 속하여
일본 패잔병들에게서 한출한 물건들과 한일 일본
군 병사들에 대한 죄문제들을 취급하면서 동만 전역
을 걸쳐 두만강을 건너 평성, 회성, 무산을 지나
청진, 4집으로 지나서 함흥시에 걸쳐 평양에 가
기 9월 말에 도착하였다. 평양에 도착하자 유선
훈은 25군단 원전 사령부에 속하여 역시 정외부
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시었다. 원전 사령부란
군대가 주둔구역 안민등을 지도하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각 산업부문을 지도하기 위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출판, 보건, 보안, 내무, 교육부까지 있어서
한국의 내각과도 상사하였다. 유선훈은 주로
과학과 고등 교육부, 출판 편찬부까지 지도 하시며
1946년 5월까지 일하시다가, 1946년 6월말에는

북한 내각고급지도간부학교 설립 및 소련공산당 대공지도
 경험이란, 학부장 겸 철학강사로 일하시었다. 이 학교는
 동 평양 사동 한광 초에 주재하여 있었으며 학교는
 그리 크지 않게 약 350명의 학생들을 수재할 기함
 으르 양성하군 하였대 이 350명은 하급이군인반



사진은 유성훈 선생의 가족사진인바, 유성훈선생,
 딸 - 나자, 부인이덕선, 차남 테세이 촬영 됨.

위원회 위원장 군당위원장, 으르 시작하며 각 프당
 고급간부들과 각 성에서는 상, 부장들까지 한병도
 비바짐없이 전부다 라스-레닌주의 학습을 받게마
 려어있다. 학교에는 350명을 위한 기록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350명을 보장하는 고급식당이 있었으며
 그에 따르는 비용전부는 소련군대 본부가 현금으로 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불학교의 교장에는 명예직으로
 김일성이고, 불 교장에는 김삼만, 박영빈 선생 등이 1950
 년 9월 까지, 평양이 함락되던 날까지 일하시었다.
 전쟁시기에는 불교가 동맹국령 안포를 걸쳐 북
 에 까지 퍼져서 갔다가 다시 평북에서 일하였다
 초사기, 즉 조직초시기에 있어서 내각중앙지도간부회의
 회원 권영은 대간히 쇠였다. 불원에서 북한에 나가서
 은 전체 학과 지식층은 다 이 학교에서 일하였다 어리
 하여 유성훈 선생으로 불려 시작하여, 박영빈, 정국록, 강상호
 김동철, 원희안, 장남익, 박영석 선생 등이 일하시었다.
 그 외에 리춘백 선생은 인민군대 북부에 들어가지 전
 까지 일하시었다. 내각 간부학교 제 1회 졸업식은 1946
 년 9월 중순에 있었다 이 졸업식에는 김일성 내각
 수상, 김두봉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 원주당 당부
 를 비롯하여 불교군 25군단 소령부 대령, 인
 전 사령부 사령관 루바넨코 소장, 25군단 정치부장
 그로부브 대좌, 정치부 선전 선동부장 예르일코프 등 고
 위급 간부들의 직접 참석하에 성대히 진행되었던
 바, 제 1회 간부학교 졸업장은 김일성 수상이 직접 수여
 하였으며, 김일성에 대한 찬사는 북도, 12대 부총장이
 로어로 "장백산 줄기-줄기" 김장군 노래를 바탕으로 하여
 낭송하여 관중의 절찬을 받았다. 1948년에는 남한
 국회 의원 백여명 어상을 초청하여 간부학교에서 공부
 제하고 그들을 북한 인민회의 대의원들과 함하여
 1회 통일정부를 세운다고 하였다. 1950년 6월 25일

9,
에는 남북 통일을 향하여 동족 상잔을 개시하였다.
유성룡 선생은 6.25 사변당시 조종당 중앙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 나가시어서 많은 활동을 하시었다. 그대
활동 범위 내용은 북한어 남한어다도 북한 모델리 제도
를 수립하기 위하여 각도에는 도당들을 조직하며, 서울특
별시에는 시장, 시민민회원회를 조직하는 문제였다.
그당시에 서울 중앙청에는 권선사령부, 고려 호텔에 서
울시 인민위원회가 박창식 선생의 지도하에 있었고
서울 시장은 리승철 선생의 지도에서 사업하시였으며,
인민군 권선 총령사령부 장은 김일성지 지도하에 환경
원에서 사업하였다. 그후 1950년 9월 10일 하룻에
연천에 유엔군이 상륙하자 동년 9월 25일에는 서울
시가 함락되고 전반적 후퇴라 시작되자 유성룡선
생은 막대한 고생을 겪으면서 한포까지 후퇴하
여 돌아와 다시 내각 고급지도 간부학교를 만나 그
의 책업지로 평안북도 경주시에서 1954년까지 일
하시고 1954년 가을 북해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으
로 일하시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평양 모란봉석벽
편 아주 경치가 좋은 장소에 자리잡아 스나, 조국전
쟁시기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전후 단기간에 복구
하여 (다) 전쟁전보다 위대하게 일터였다. 그러나
전쟁 3년기간에 전체 산업시설이 파괴가 되고, 농촌경
리가 파산된 조건에서 가진택진인민들이 소련과 중국정
부의 방조에 의거하여 겨우 움뻐며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조건하에서 전국 물질 생산량은 보잘것없이 축소되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전체 대학내 대학생 및 졸업생은 밤

낮 일하여야 먹고 살아가기 바빠 버텨야 했다. 그러나 언젠가
 대학생들은 광범한 미래를 믿으면서 히틀러를 쫓아내고
 일하여 과욕도 영구하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유선생은
 생은 특별한 희망을 걸고 열성을 다하여 대학내 모든 사
 업들을 조직적으로 하여, 또 자신의 강의로 한 번은 배워줌
 이 진행하였다. 이렇게 유선생은 자기가 조직하고 집
 행하는 사업에서 유쾌함과 성스럽게 느끼며, 희망도 있고
 또 자기가 지도하는 단체 구성원의 신임도 두텁게 자라는 것
 을 감수하기 시작하자 1956년 초에 조선 우르벡 공화
 국 불리모절 켈호르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 동생 유우체라
 바바를 만나 와, 켈호르에서 아주 신나게 다년간 일하고 있는
 박 세르게이에게 편지를 쓰기를 « 언젠가는 소련에서 그만
 일하시오, 여기 조선에 나와 일하시면서 같이 살자고 » 하였다.
 그리하여 이상 두 양주는 사실, 고향에 나가 살겠다고 준비
 하면서 조선 정부의 정식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두 분
 은 우르벡 공화국에 살면서도 그때나 현재나 살림살이는
 아주 넉넉했고, 사채 건물, 내복 살림사리 가축, 일일이
 다 당시 북한 국장들이나 상들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
 지 못하였다. 그들은 너무나 호이스롭은 생활이 지루한
 감을 주거나, 자각용 농용작가 들에서 가려한 것이 아
 니라 다만 한마리 말 « 고향 » 이 두 글자가 금보
 다도 그리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맘 먹었던 것이다.
 그런데 편지는 1956년 초에 날려왔으나 1957년 초에는
 꼭 써나리라고 기다렸으나 초청장도, 편지도 알지 못
 하였다. 3월경 이상이 행복하게 살며 일하고 있는 집

단 농장을 ^별 ^리 ^목 ^질 ^물 ^로 ^는 ^적 ⁴ ^다 ^화 ^려 ^하 ^여 ^가 ^고 ^있
 는 형편에서 떠나갈 마음을 먹기도 여만-저만 바
 뉘지 않았으나, 이미 결심하였으니 꼭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유성훈 선생께서 편지 한량 보내
 주지 않으시니 기다리기 대단히 답답하였다. 그러던
 차 사냥검호에 설참으로 걸쳐 고생하다가 부분적 동지들은
 감옥에 들어갔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난광, 광산,
 그렇지 아니면 두대산골에 짐배사리를 갖다나오는 소문
 이 들며 소위 시작하여, 1957년 9월에, 김윤권 등
 혁, 기숙복, 작은 김일, 명철봉 등등 무들이 귀국하여
 을 때에 인천에 가지고 온 편지에 유성훈 (선생의) 선
 생의 소식을 "내가 아마도 여기에 와서 과오를 범한 일
 이 있는 것 같으니, 누이동생과 태부 두분은 아직 여
 기에 오는 일에 대하여 잠깐 중지하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몇달 후에 유성훈 선생의 동생 유성철 (총
 참모부 부참모장 겸 작전국장) 이 가족을 데리고,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의 방조에 의하여 용행 사선을 넘어
 하류권호에 도착하게 되었다. 유웨이라는 자의 작은
 오빠 성철에게서 모든 사실을 자세히 들었다. 그때
 예마 유웨이와 박철크르제이는 하늘나라의 낙원
 처럼 믿고, 꼭 가겠다고 생각먹고 있던 북한에
 대하여, 인간의 불화, 개사 혼란, 서로 뜨고, 불고
 차고 하여 사람을 잡아먹는 나라, 그와 더불어 소련
 권력이 위감으로 자기 권력을 갖기 위해서도 소련을 배방
 하리, 소련에서 위대한 간부들을 다 잡아죽여 단독재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성훈 선생은 원중에 있을 때

북의 자기 친척들에게 대하여 특별히 많은 관심을 돌리^{12.}
군 하면서, 어디에서 살든지 한곳에 집결하여 같이
살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 물밭고, 산천
이 아름다운 북한에서 다 같이 살기로 결심해서 아름다운
꿈이라도 속으로 그려 봤으나 김일성의 동계 왕좌극의는 무
엇이나 다 파괴하였다. 유선생 선생, 수경보다도 더 총명하고,
인자하고 선량한 선비에게 사상검토 물감을 칠고
노련 가족주의, 노련 조국주의, 노라이나, 백항목이나 기타
다른 지도자들에게서 받은 범죄적 지시가 반듯이 있을 것이니
내며 놓으란 다짐, 이것은 참 없는 것을 없다고 하니, 조
선 독답에 "비선 목어니 출적 뒤번지여 벗어 깎는가?" 참
코구멍을 그리 놓고도 답답한 것이었다. 유선생은 홍광
적무에서 벌써 해임되고 다만 사상검토 회의에만 참가
한지로 오래 있어 넘었다. 흥분한 선생에게 허물어 앉는
글러를 시워 놓고 매일 수십명 당원들이 몰려 들어 죄리
군 하기 때문에 유선생은 벌써 식비를 전혀 없애 버리고
벌써 1959 2월에는 황달병에 걸려 집에 누워 있었다.
유선생은 여러번 자살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자기에게 죄가 없는 한 자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굳게 결심하고 맞이락으로 김일성 "역사에게 편지를
물려주고 마음 먹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나는 노련에서 이곳에 도착하여 이때까지 수상
동지의 지시를 정중히 하며, 집안생활이 온 15년간
일하듯 언바 도입에는 단연에 걸려 황달병에 걸
어가 힘대어 누워 있습니다. 내가 맞이락으로 수상
동지에게 신중하든 바든 나를 노련에서 쫓겨 나가 흥남
노예 가서 장기간 죄로 받고 다시 돌아와 일하게 하
여 주십시오. = 하였다.

그 뒤로 1959년 5월에 김일성 수반의 허가가
 있을 후 조선대사관의 허가를 및 국적 취득을 위하여 1959
 년 말에야, 소련으로 귀환하는 것으로가 타타르 소련에
 임시 병치료를 받는 것으로 약속하여 가시고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이 같이 오게 될 것은 분명치라 하여, 막대한
 병시중으로 따라오게 되고, 또 거기엔 꼬마이 딸타어는
 할 수 없이 데리고 왔으며, 그와 아들 형제는 별다른
 년 전에 모스크바에 가서 유학하였기 때문에 그때까
 지 수족이 없이 잘 되었다. 어떻게 병치료를 소련에 들
 어와 갔어고 다시 조성에 나가서 어머니 고향에 돌아
 온 셈이 되고 말았다.

유성훈 선생은 1959년 11월에 예췌뚜기 중앙소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으시면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
 회의 참원으로 내어 완전히 소련에 귀향한 것으로 약속
 하고, 바로 예췌뚜기 중앙소에 살림집을 배정받았다.
 중앙소에서 잠기간 치료받도록 할란행은 열이 죽다고 한
 여로 심장병에 의하여 계속 치료를 받으라, 일러하시며,
 책도 보게 하였다. 그뒤에 예췌뚜기 사랑 집회 강사
 를 1년 중앙소, 각 기관 등에 돌아 간 나머지 강의를 하
 시면서, 항상 고향에 대한 고독, 그 사상검찰에서
 박해를 받을 설음, 고민 등은 항상이라도 유선생의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리하여 유선생
 은 고향에 고향을 늦기다가 1966년 8월에, 80세
 를 일기로 하시고 예췌뚜기 시에서 세상을 떠났다.
 현재 유선생의 부인 리덕성이와 딸 누자은 예췌
 뚜기에서 무사히 있으며, 차남 딸태이는 모스크바에서
 교육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장영웅